

#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과 임상간호인성과의 관계

우현미  
영남외국어대학교 간호학과

##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hospitals' effortful nursing performance and clinical nurses' personality

Hyeon-Mi Woo  
Department of Nursing, YoungNam foreign language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상간호인성이 느린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D시와 K도에 소재한 요양병원 간호사 118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간호인성( $\beta=.312, p=.001$ ), 총 임상경력( $\beta=.103, p=.375$ ), 직위( $\beta=.045, p=.654$ ), 연령( $\beta=-.043, p=.684$ ) 순으로 나타났으며, 느린간호에 대한 설명력은 33.6%로 나타났다. 임상간호인성 하위영역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은 상호작용 공정성이므로 간호사들에게 대상자를 배려하는 마음, 긍정적 태도, 교감하는 대인관계, 자기주장 표현, 직장예절, 감정관리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인성을 갖추도록 교육함으로써 임상간호인성 함양을 도모해야하며,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Abstract** This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assess whether long-term hospital care, the impact of nurses' performance, and the personality of clinical nurses affect the slow nursing received by older adul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with 118 long-term hospital nurses located in D city and K Province from September 10 to November 10, 202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low nursing performance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were clinical nursing personality ( $\beta=.312, p=.001$ ), total clinical experience ( $\beta=.103, p=.375$ ), position ( $\beta=.045, p=.654$ ), and age ( $\beta=-.043, p=.684$ ).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above factors was 33.6%. Among the sub-domains of clinical nursing personality, the area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is interactional fairness, wherein nurses are taught the personality necessary for work life, such as consideration for patients, positive attitude, sympathe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pression of assertiveness, workplace etiquette, and management of emotion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is clinical nursing personality by providing appropriate training to equip the nurses to provide better care to elderly patients.

**Keywords** : Slow Nursing, Personality, Elderly, Slow, Nurse Practitioner

---

\*Corresponding Author : Hyeon-Mi Woo(YoungNam foreign language College)

email: whm8657@daum.net

Received December 7, 2023

Accepted February 6, 2024

Revised January 3, 2024

Published February 29, 2024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40.1%로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노인 인구의 급증은 노인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를 초래하여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의 수가 급증하였다[2]. 요양병원은 노인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만성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수행(ADL) 능력이 저하된 것을 돕는 치료와 요양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곳이다[3].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은 거동이 어렵거나 불편한 환자들로 노화로 인한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로 감각 반응 속도가 느리고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 낙상과 골절,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빈뇨와 실금 및 요 정체를 호소하는 대상자가 많다[4]. 노화로 인한 뇌 기능의 쇠퇴와 중추신경계 작용 저하는 인지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며,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5].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는 노인 환자를 간호할 때 대상자의 속도를 무시한채 분주하게 서두르거나 빠른 반응을 요구하게 되면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더 고통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간호하는 것이 중요하다[6,7].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해 노인은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분리되고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등의 사회적 기능의 문제가 발생되고[8], 노인 환자는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지역사회로 복귀 등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제공자 중심의 판단에 의한 치료와 돌봄이 이루어져 가족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존적인 태도를 보인다[9].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는 입원 노인에게 대상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알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노년기 과업인 자아통합감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돕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10].

이상과 같은 이유로 노인 환자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노인의 느린 속도에 맞추어 개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간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느린간호'와 '인간중심간호'의 개념이 등장하였다[11]. 느린간호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호작용의 질에 초점을 두고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12]. 느린간호는 단순히 간호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인 환자의 변화와 일상생활 능력

과 잔존능력을 주의 깊게 파악하여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간호를 제공하며 치료과정에서 불편감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과거와 현재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아 삶의 가치를 부여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13].

선행연구에 의하면,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는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느린간호 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15]. 요양병원 간호사의 긍정적인 노인 돌봄 태도와 높은 자기효능감도 느린간호 수행을 향상시켰다[16].

최근 전문직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행동과 태도에 대한 변수로서 임상간호인성이 대두되고 있다. 임상간호인성은 임상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품성이며, 이는 근면, 책임, 신용, 예절, 공감 등을 의미하고, 간호사가 좋은 인성을 갖게 되면 대상자, 가족, 공동체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문직업관 확립하므로 간호사는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꼭 갖추어야 하는 인성덕목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17].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에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핵심역량으로 부각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18,19]. 또한, 좋은 인성을 갖춘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좋은 간호사라는 이미지를 갖게 한다[20].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사의 좋은 인성은 대상자와의 원만한 대인관계와 조직의 다른 부서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의 인성 수준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확실하게 형성된다[21]. 간호사의 임상간호인성이 좋을수록 간호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간호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22], 임상간호인성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임상간호인성에 대한 연구대상자가 간호대학생인 경우가 많고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의 연구가 있으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희박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느린간호와 임상간호인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영향력을 조사하여 느린간호 증대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임상간호인성이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느린간호 수행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느린간호 수행 정도를 파악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느린간호 수행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임상간호인성과 연구대상자의 느린 간호 수행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임상간호인성이 연구대상자의 느린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본론

### 2.1 연구설계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간호인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간호인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24]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효과 크기 0.15, 예측변수 7개로 연구대상자 107명이 회귀분석 검정 시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중도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설문지 내용이 모두 만족하여 118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 방법은 직접 대상자를 간호하는 방법이기에 때문에 간호부 행정 담당 간호사 및 교육 전담간호사 및 외래 근무 간호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대상자를 직접 간호하지 않는 간호사는 제외하였으며, 6개월 이상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로 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력, 현재 직위, 총 임상경력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 2.3.2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Woo[25]가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측정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기', '존중', '관찰 및

주의 깊음', '안위 도모', '삶의 가치부여' 5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방식은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는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느린간호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 개발 연구에서 보고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1이었다.

#### 2.3.3 임상간호인성

Park[18]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간호인성 측정을 위해 개발한 임상간호인성 측정도구 NCS\_C( Nurse's Character Scale for Care in Clinical setting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5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의 하부요인으로 '책임'(5개 문항), '근면'(2개 문항), '침착'(3개 문항), '열정'(5개 문항), '진실'(4개 문항), '친절'(6개문항), '신용'(2개 문항), '공감'(4개 문항), '경청'(6개 문항), '정중'(3개 문항), '상호작용 공정성'(3개 문항), '협력'(5개 문항), '예절'(5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가 1점에서 '거의 그렇다'가 5점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간호인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18]의 연구에서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2.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9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였고 D시와 K도에 소재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병원 근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D시와 K도에 소재한 7개 요양병원 병원장과 간호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연구 협조공문을 발송한 후 모집공고문을 병원 게시판에 게시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윤리적인 부분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서에 동의 의사를 밝힌 자로 선정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시간은 평균 10분이었다.

###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승인(IRB No PO1-202309-01

-017)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설명문에는 연구 진행 주요절차, 연구목적, 연구 참여 중단 및 철회, 익명성 보장, 연구자료의 보관과 폐기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설명문을 읽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동의서 작성 후 설문지 작성을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 2.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간호인성, 느린 간호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느린 간호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로 하였다. 대상자의 임상간호인성과 느린 간호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느린 간호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Hierarchical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결론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느린간호

연구대상자 118명 중 남성은 9명(7.6%), 여성은 109명(92.4%)이었고, 연구대상자는 20대 4명(3.4%), 30대 20명(15.1%), 40대 30명(25.4%), 50대 51명(43.2%), 60대 이상은 13명(12.9%)으로 평균연령은 48.66세이며, 대상자 중 50대가 가장 많았다. 현재 직위는 일반간호사 79명(66.9%), 책임간호사 이상 39명(33.1%)이었고, 교육 정도는 학사 이상이 91명(77.1%)이었다. 총 임상경력 20년 이상 59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은 18.18±10.23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느린간호 수행정도의 차이는 연령, 현재 직위, 총 임상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총 임상경력에 따른 느린간호 수행 정도의 평균은 사후분석 결과 연령은 60세 이상이 (F=4.07, P<.001). 총 임상경력 20년 이상이 다른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9.42, P<.001). 직위에 따른 느린간호 수행 정도의 평균은 책임간호사 이상이 일반 간호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7.812, P<.001)(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Slow Nurs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low Nursing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en	9(7.6)	2.77±.16	.62	.43
	Women	109(92.4)	2.96±.19		
Age (year)	≤29 <sup>a</sup>	4(3.4)	2.87±.10	.63	.635 (a<b,d)
	30~39 <sup>b</sup>	20(15.1)	2.95±.16		
	40~49 <sup>c</sup>	30(25.4)	2.94±.21		
	50~59 <sup>d</sup>	51(43.2)	2.99±.21		
	≥60 <sup>e</sup>	13(12.9)	2.94±.15		
Education	Diploma	27(22.9)	2.94±.19	.13	.715
	≥Bachelor	91(77.1)	3.03±.22		
Position	Staff nurse	79(66.9)	2.93±.18	.84	.361
	Charge nurse	39(33.1)	2.97±.22		
Total clinical career (year)	<10 <sup>a</sup>	29(24.6)	2.91±.18	3.2	.014 (a<c)
	10~<20 <sup>b</sup>	30(25.4)	2.93±.43		
	≥20 <sup>c</sup>	59(50.0)	2.95±.01		

### 3.2 대상자의 느린간호 수행과 임상간호인성의 정도

대상자의 임상간호인성은 평균 평점 5점 만점에 3.96 ±0.26점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병원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26] 5점 만점에 3.8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위영역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이 4.36±0.7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용(4.18±0.56), 예절(4.11±0.47), 진실(4.09±0.44), 친절(3.99±0.41), 경청(3.97±0.33), 협력(3.95±0.40), 정중함(3.91±0.40), 근면함(3.80± 0.57), 책임과 열정(3.67±0.47), 침착(3.66±0.57) 순으로 나타났다. 느린간호 수행 정도는 평균 평점 4점 만점에 2.95±0.19점이었다. 하위영역에서 존중이 3.25± 0.43점으로 가장 높고, 안위 도모(3.19±0.44), 대상자 속도에 맞추기(2.94±0.23), 관찰과 참여 격려(2.93±0.33), 삶의 가치부여(2.52±0.3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 3.3 대상자의 느린간호와 임상간호인성의 상관관계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와 임상간호인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임상간호인성(r=.042, p<.001)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2. Level of Slow Nursing and Clinical nurse personality (N=118)

Variables	Item	M±SD	Min	Max
Slow Nursing	23	2.95±.19	2.52	3.43
Match the patient's pace	7	2.94±.23	2.29	3.43
Encourage observation and participation	7	2.93±.33	2.14	3.86
Promoting safety	3	3.19±.44	2.33	4.00
Respect	3	3.25±.43	2.33	4.00
Giving value to life	3	2.52±.38	1.33	3.67
Clinical nurse personality	53	3.96±.26	3.38	4.70
Responsibility	5	3.67±.47	2.60	5.00
Passion	5	3.67±.47	2.60	5.00
Industry	2	3.80±.57	2.50	5.00
Composure	3	3.66±.57	2.00	6.00
Truth	4	4.09±.44	3.00	5.00
Credit	2	4.18±.56	3.00	5.00
Kindness	6	3.99±.41	3.33	5.00
Listen	6	3.97±.33	3.17	4.83
Sympathy	4	4.00±.44	2.75	5.00
Cooperation	5	3.95±.40	3.00	5.00
Courtesy	3	4.11±.47	3.00	5.00
Manner	5	3.91±.40	3.00	5.00
Interaction Fairness	3	4.36±.75	2.00	5.00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nurse personality and Slow Nursing (N=118)

Variables	Slow Nursing r(p)				
	Match the patient's pace	Observation and encourage participation	Promoting safety	Respect	Giving value to life
	r(p)	r(p)	r(p)	r(p)	r(p)
Clinical nurse personality .42 (p<.001)	.33 (p<.001)	.37 (p<.001)	.26 (.003)	.12 (.185)	.37 (p<.001)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for Slow Nursing (N=118)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beta(\rho)$	$\beta(\rho)$	$\beta(\rho)$	$\beta(\rho)$	$\beta(\rho)$
Age		.078(.402)	.057(.546)	.037(.732)	-.043(.684)
Position			.131(.164)	.116(.264)	.045(.654)
Total clinical career				.042(.722)	.103(.375)
Clinical nurse personality	.23(.001)				.312(.001)
F( $\rho$ )	12.80(0..1)	.709(.402)	1.964(.164)	.127(.722)	11.307(<.001)
R <sup>2</sup>	.099	.078	.151	.154	.336
Adjusted R <sup>2</sup>	.092	.006	.023	.024	.113

### 3.4 대상자의 느린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느린간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느린간호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임상간호인성과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총 임상경력과 직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충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변수들의 공차의 한계 (tolerance)는 0.1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는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는 1.00 ~ 2.09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02로 2에 근사한 값으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느린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간호인성( $\beta=.31, p=.001$ ), 총 임상경력( $\beta=.10, p=.375$ ), 직위( $\beta=.04, p=.654$ ), 연령( $\beta=-.04, p=.684$ ) 순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식은 유의하였다( $F=11.30, p<.001$ ). 대상자는 임상간호인성이 좋을수록,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느린간호 수행 정도가 높으며, 직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느린간호 수행 정도가 높았다. 이들 변수들의 느린간호에 대한 설명력은 33.6%로 나타났다(Table 4).

## 4. 논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근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느린간호 수행 정도를 알아보고, 임상간호인성이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느린간호 수행 정도는 4점 만점에 2.95점으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측정도구 개발 당시 느린간호 수행 정도 보다 낮은 점수로 측정되었다. 이는 측정도구 개발 당시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50대 이상의 비중이 42.5%이었고 평균 임상경력은 18년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측정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하나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공정성'이  $4.11 \pm 0.79$ 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다[22]. 이는 요양병원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환자들의 증세가 안정적이고 만성적으로 되면서 예민함이 줄어든 상태로 요양병원 간호사와 마주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보다 친밀한 인간관계가 되어 이로 인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임상간호인성이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상간호인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인성 하위 요인 중 '친절' 요인이  $4.15 \pm 0.57$ 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나[26].

본 연구결과와 요양병원 간호사의 공감 능력과 노인 돌봄 태도가 노인간호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27]. 느린간호 하위요인 중에서는 '존중'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노인대상자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화 시 대상자가 반복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의미를 생각하며 공감을 해주며 대상자의 눈을 맞추고 등 노인 존중에 대한 인식과 수행이 이미 행해지고 있는[27]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제안하자면, 본 연구는 일 개 지역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추후 여러 지역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확대된 연구와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확인하여 요인들 간의 매개효과 연구를 제안한다.

간호현장의 간호관리자들은 간호사에게 환자 간호수행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상자를 배려하는 마음, 긍정적 태도, 교감하는 대인관계, 자기주장 표현, 직장예절, 감정 관리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인성을 먼저 갖추어야 하며, 이를 교육함으로써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임상간호인성 함양을 도모해야한다[28].

본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상간호인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중 임상간호인성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영향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간호인성이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는 임상간호인성, 총 임상경력, 직위, 연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느린간호 영향요인들을 반영한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느

린간호 수행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게 하여 노인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부 지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여러 지역의 더 많은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느린간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파악하여 느린간호를 좀 더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분석 및 구조모형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National Statistics Portal, Status of Senior Citizens. [https://kosis.kr/easyViewStatis/customstatisIndex.do?vwcd=MT\\_TM1\\_TITLE&menuId=M\\_03\\_01.2023](https://kosis.kr/easyViewStatis/customstatisIndex.do?vwcd=MT_TM1_TITLE&menuId=M_03_01.2023)
- [2] K.. Lee, E.. Cho., "The effects of nursing satisfac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the adaptation of elderly people hospitalized in nursing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Academia-Technology*, Vol. 5, pp. 441-451, 2016. DOI: <http://doi.org/10.5762/KAIS.2016.17.5.441>
- [3]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ational Legislation Information Center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IsLinkProc.do?lsNm=%EC%9D%98%EB%A3%8C%EB%B2%95&joLnkStr=&chrClsCdEB%A3%8C%EB%B2%95&joLnkstr=&chrClsCd=&mode=20> (2018,2020May15).
- [4] E. H.. Le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professional life of nursi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Vol. 24, No. 4, pp. 377-388, 2022.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2.24.4.377>
- [5] H. M. Cho, S. H. Kwon, Y. H. Lee, Y. J. Kim, J. M. . Kang, "Safety management of elderly patient by clinical nurses experience ",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Vol. 22, No. 2, pp. 105 -116, 2020.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0.22.2.105>
- [6] S. H. Kim, "Nursing practice guidelines for well- dying of elderly people living in elderly care facilities",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Seoul. 2016.
- [7] J. H. Kwon, G. R. Hong, "The impact of self-care on burn out among primary caregivers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incens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 51, N o. 2, pp. 217-231, 2021. DOI: <https://doi.org/10.4040/jkan.20274>
- [8] S. M. Kim, G. J. Lee, , "Pre and post Risk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10th Korean Medical Panel using dat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Vol. 22, No. 4, pp. 281-290, 2020.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0.22.4.281>
- [9] J. Kim, G. Kim, "Despair and family support perceived by elderly patients in a nursing hospital",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Vol. 16, No. 2, pp. 151-159, 2014.
- [10] S. M. .Lee, "Differences of opinion between elderly and caregiver dyads regarding intention to use public long-term care servic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40, pp. 103-126, 2008.
- [11] S. Y. Lim, S. O. Jang, "Development of a self-gration assessment tool for elderly people living in elderly 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Vol. 22, No. 2, pp. 140-152, 2020.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0.22.2.140>
- [12] D. Lillekroken, "Slow nursing: The concept inventing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for Human Caring*, Vol. 18, No. 4, pp. 40-44, 2014. DOI: <http://doi.org/10.20467/1091-5710.18.4.40>
- [13] A. Gallagher, "Slow ethics for nursing practice. *Nursing Ethics*", Vol. 19, No. 6, pp. 711-713, 2012. DOI: <http://doi.org/10.1177/0969733012461839>
- [14] H. M. Woo, J. S. Park," Analysis of the concept of slow nursing",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5, pp. 381-389, 2020. DOI: <http://doi.org/10.15207/JKCS.2020.11.5.381>
- [15] H. M. Woo, "The impact of nursing hospital nurses' nursing work environment on slow nursing care: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Vol. 25, No. 2, pp. 206-214, 2023. DOI: <http://doi.org/10.17079/jkgn.2023.03131>
- [16] H. C. Kim, K. .H. Lim, "Factors influencing slow nursing care among nursing hospital nurs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 14, No. 2, pp. .919-932., 2023. DOI: <http://doi.org/10.22143/HSS21.14.2.64>
- [17] H. C. Kim, K. H. Lim, "Nursing hospital nurses' self-efficacy and attitude toward elderly care are related to slow nursing impac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5, pp. 200-208, 2023. DOI: <https://doi.org/10.5762/KAIS.2023.24.5.200>
- [18] J.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urses character scale for care in clinical setting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 pp. 137-51,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137>
- [19] H. A. Ji, "A study for direc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in university accor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1, No. 6, pp. 39-67, 2017.
- [20] M. H. Nam, M. O. Kim, "Effect of personalit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4, No. 4, pp. 298-306, 2018.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4.298>
- [21] J. H. Park. "Need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6B, pp. 3321-3332, 2013.

- [22] S. Y. Jung, H. D. Lee,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s' characte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n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5, No. 3, pp. 239-247, 2019.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9.25.3.239>
- [23] M. H. Lee, S. H. Kwon, "Clinical nursing personality performance of nurses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ntion to stay at work",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Vol. 28, No. 2, pp. 110-120, 2022.  
DOI: <https://doi.org/10.1111/jkana.2022.28.2.110>
- [24] J. L. Ryu, C. Y. Chae, S. H. Kim, "Nursing humanity of hospital nurses and patients infected with high-risk pathogens Relationship with nursing intention: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7, No. 2, pp. 143-152, 2021.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21.27.2.143>
- [25] H. M. Woo, "Development of a slow nursing measurement tool for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Ph.D.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2022.
- [26] Y. K. Kim, S. H. Kwon, "The impact of nursing hospital nurses' empathy and attitude toward elderly care on elderly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Vol. 19, No. 3, pp. 203-213, 2017.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7.19.3.203>
- [27] H. K. Jang, C. R. Gil, H. J. Kim, H. J. Bae, E. O. Yang, "Nursing hospital nurses' perception of person-centered care: A focus group stud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Academic Technology*, Vol. 19, No. 11, pp. 441-453,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1.441>
- [28] E. Y. Yeom, K. Seo, "Influences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character of nurses on quality of nursing serv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4, No. 5, pp. 445-454, 2018.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8.24.5.445>

우 현 미(Hyeon-Mi Woo)

[정회원]



- 2013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2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1년 3월 ~ 2024년 1월 : 영남 외국어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기초간호, 성인간호, 느린간호, 노인간호